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2025년 겨울 제71권 4호



성탄, 말씀의 빛을
스리랑카에 비춰주세요!



(재)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어머니의 기도로 전해진 믿음, 성경으로 전하는 복음

초기 한국교회 전도부인들은
산골 안채까지 찾아가
여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한 어머니의 열정은
한국교회 부흥의 토대와
신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140년 전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열정,
이제는 성경을 기다리는
지구촌 이웃에게 우리가 응답할 때입니다.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현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해외 성경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성서공회들을 돕는 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선교회, 복지 시설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현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와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서한국

2025년 겨울 제71권 4호

02 포토에세이

믿음의 열매가 심겼습니다

04 2025 성서 사업 보고

06 커버스토리

성탄, 말씀의 빛을 스리랑카에 비춰주세요!

10 2025 해외 성서 기증 현황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80개 성서공회에
1,147,724부의 성경을 보냈습니다!

12 『새한글성경』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새한글성경』

14 현장 이야기

콜롬비아 파예즈 부족,
모국어 성경으로 신앙과 언어를 되살리다
_나사어(Nasa) 성경 봉헌식

17 성경을 전하다

성경, 메마른 땅에 심긴 소망의 씨앗
_말라위, 잠비아 성경 보급 현장

20 후원자 이야기

복음을 전하는 손길

21 후원 이야기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의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25년 12월 31일
· 인쇄인·인쇄처·편집 : (주)타라티피에스
*<https://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지는 도서집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 어린이 성경을 받고 미소 짓는 사메르(Samer,가명/오른쪽)

믿음의 열매가 심겼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 13:8)

9살 어린이 사메르(Samer,가명)는
요르단성서공회 어린이 사역팀으로부터 받은
어린이 성경을 품에 안고
들뜬 얼굴로 미소 짓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 성경이 생겼어요!”

온천과 푸른 언덕으로 둘러싸인
요르단의 작은 마을 마인(Ma'in).
이곳의 아이들 35명이 함께 모여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말씀을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자신만의 성경을 받아 들고,
“매일 읽을게요.”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요르단성서공회 어린이 사역팀은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말씀의 씨앗이 심긴 것을 보았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나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로 성서 사업을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본 공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국내외 세계 곳곳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은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성서 보급 사업

금년에는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해서 34,461부가 증가한 349,341부의 성경을 보급하였습니다. 『새한글성경』을 비롯한 국내 성서 보급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교회 독자들이 말씀을 가까이하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자료들을 출판·보급하고자 합니다.

해외 성서 보급 사업

금년에는 101개 나라에 154개 언어로 4,137,088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1973년 해외 성서 보급을 시작한 이래 총 202,890,166부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본 공회는 경쟁이 치열한 세계 성서 수출 시장 속에서 성서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인적, 재정적 자원 및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프리카 불어권 성서교회 대표들, 미주 지역 성서 출판 보급 확대 태스크포스 팀, 탄자니아, 몽골 성서교회 총무가 본 공회를 방문하여 성서 출판 및 보급 확대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각 성서교회들의 성서 제작 요구와 제안을 확인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마다가스카르에서의 아프리카 총무 회의, 크로아티아에서의 서발칸 성서교회 출판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각 지역 성서교회들의 성서 사업과 성서 제작에 관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7월에는 칠레에서의 스페인어 성경 보급 워크숍에 참석하여 스페인어권 성서 이용자들의 요구와 필요를 이해하고 확인하며 이를 계기로 독자 중심의 성경 제작과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멕시코성서공회를 방문하여 출판 회의와 본 공회가 제작한 출어린이 성경 보급 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출 부족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모국어로 어린이 성경을 보급하여 어린이들과 출 부족 신앙 공동체에게 특별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9월에는 레바논과 튀르키예를 방문하여 중동 지역 성서교회들과 성서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와 종교적 박해 가운데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의 헌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데에서도 성서 보급에 힘쓰는 중동지역 성서교회들을 위하여 다양한 성서 보급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해외 성서 기증 사업 및 이를 위한 모금사업

본 공회에서는 세계 성서 운동을 위해 세계성서교회연합회에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성경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80개 회원 성서교회에 1,147,724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기증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국내외 성서 사업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4억 9천여만 원이 증가한 총 60억 8천여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국내외 성서 기증 사업을 위해 총 38,995곳(명)의 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후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5백만 원 이상의 고액을 후원하신 교회·기관·개인은 총 53곳(명)입니다.

또한故 신영오 교수께서 유산을 기부하여 현재(11월 말 기준)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 성경을 보내는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한국교회와 후원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개정 작업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개정위원회”는 16개 교단에서 추천한 위원들과 국어 위원들로 구성되어, 개정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

약의 경우에는 개정 초안 작업과 교차 검토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국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개정 초안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교차 검토 작업을 11%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개역 성경의 전통적인 문체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원문에 비추어서 문장 부호를 전체적으로 부여하고, 너무 긴 문장은 적절히 끊거나 어순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은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우리말 어법에 맞게 다듬고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대한성서교회 제144회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한눈으로 보는 2025 성서 사업 보고



국내 성서 보급

349,341부의
성서 보급



해외 성서 보급

101개 나라에 154개
언어로 4,137,088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보급



해외 성서 기증

80개 나라에
1,147,724부의 성서 기증



후원 헌금

60억 8천여만 원

성탄, 말씀의 빛을 스리랑카에 비춰주세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달력의 마지막 장을 넘기면 어느덧 올 한 해가 끝났음이 실감 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탄을 준비하며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할 때,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올해 성탄을 앞두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문자교실

올해 여름, 본 공회는 스리랑카에 직접 방문해 스리랑카성서공회 사역자들과 함께 현지 교회 현장을 파악하고 성경을 보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문한 수도 인근 데히왈로(Dehiwalo) 지역 주민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도 생계를 위해 마약 배달을 하며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데히왈로 갈보리교회(Calvary Church)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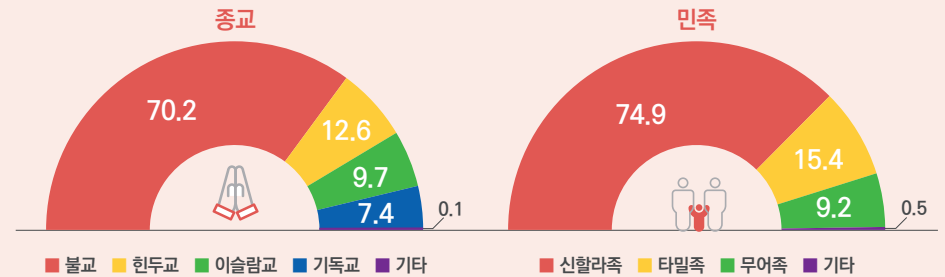
는 스리랑카성서공회가 운영하는 문자교실에 참여하는 청소년 1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을 받아 든 아이들은 수줍게 눈을 반짝이며 성경을 펼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만 되어도 대부분 글을 읽는 우리나라 아이들과 달리 이 아이들은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에도 성경을 겨우 더듬더듬 읽어 나갔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한 이들에게 교회는 유일한 배움의 통로였습니다.

“데히왈로(Dehiwalo) 지역의 어린이들은 문맹률이 높고, 대부분은 마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마약에 중독된 경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대신 마약 심부름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 있는 10여 명의 청소년은 저희가 운영하는 문자교실을 통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지역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겪는 많은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이산타 멘디스(Ishantha Mendis/
문자교실 담당자)

스리랑카 종교·민족 구성비

자료 : 미국 중앙정보부(CIA)



스리랑카 전역에는 여전히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글을 모르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스리랑카성서공회가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문자교실은 성경 이야기 교재를 통해 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읽는 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글을 배우며 어린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전도 활동이 어려운 스리랑카에서 문자교실은 스리랑카의 다음 세대에겐 복음을 전하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 성경을 읽고 있는 문자교실 참여 청소년

말씀의 빛을 기다리는 스리랑카

스리랑카는 인도 동남쪽에 있는 섬나라로 한국의 2/3 정도 크기입니다. 주된 민족인 신할라(Sinhala)족은 대다수 불교를, 타밀(Tamil)족은 힌두교, 무어(Moor)족은 이슬람교를 믿는 등 민족에 따라 종교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가 다른 민족들 사이에는 영국 식민 시대부터 오랜 갈등이 존재했고, 소수 민족인 타밀족의 독립 요구에 따른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1983년부터 2009년까지 약 30년간 가까이 지속된 내전으로 수만 명의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국내 실향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민족 간의 긴장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독교는 스리랑카 내의 가장 소수 종교로 기독교 인구 비율은 약 7.4%입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불교가 ‘최우선적’ 위치로 명시되어 있는 데다가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공동체 간에 종교적, 사회적 긴장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예배와

전도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고 심각한 경우 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기다림 끝에 마주한 첫 성경의 기쁨

학미마나(Hakmimana) 마을은 주민의 95%~99%가 불교를 믿는 지역입니다.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 기독교인들은 소규모 가정교회 형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디네시(Dinesh) 목사는 이 지역에 4개의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권의 성경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에서 본 공회의 방문으로 성도들 대부분이 자신의 첫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 성경 전달 모습(왼쪽부터 디네시 목사와 와산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힌두교 신자들은 수많은 낚싯바늘을 맨몸에 꿰어 줄에 매달린 채 의식을 행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맞은편에 위치한 기독교부흥교회(Christian Revival Church)에서는 입구부터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힌두교 의식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성도들은 마치 영적 전쟁을 치르듯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예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성도들에게 성경을 직접 전달하자, 성도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보내시는 '한 권의 성경'이 현장에서 얼마나 큰 영적인 힘이 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스리랑카의 기독교 공동체들은 교회 등록과 허가, 예배 공간 마련에 있어 여러 행정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



▲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기독교부흥교회(Christian Revival Church) 성도

서는 예배가 중단되거나, 예배 장소 사용이 제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리랑카의 교회와 성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읽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해지는 성경은 억압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피어나는 나라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 멀리 떨어진 스리랑카의 작은 교회 안

에서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시는 한 권의 성경은 누군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첫 성탄 선물이 됩니다. 스리랑카 땅에서 성경을 받은 이들이 들려준 감사와 기쁨의 고백은, 곧 이 사역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말씀의 빛이 스리랑카가 겪는 절망의 골짜기마다 비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새 희망으로 반짝이길 소망합니다. 🌍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사편 119편 105절)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1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보내는 컨테이너에 성경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 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성경을 받고 싶어 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받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이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신의 성경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성경이 보급되기를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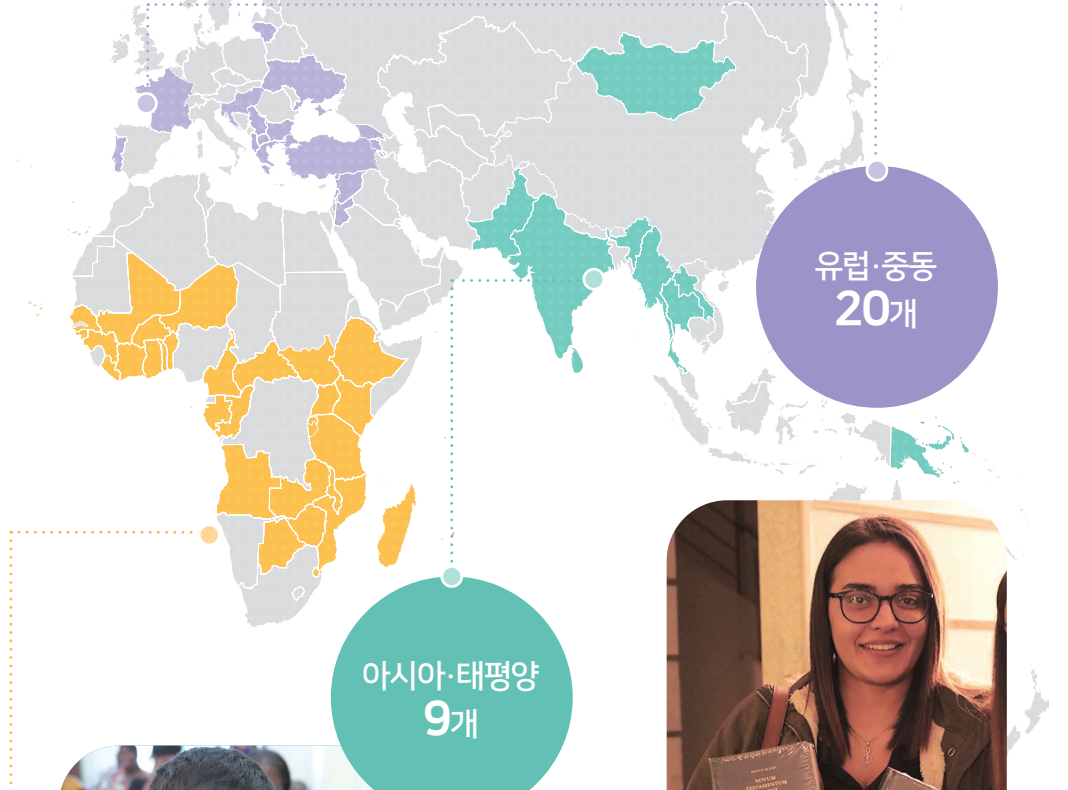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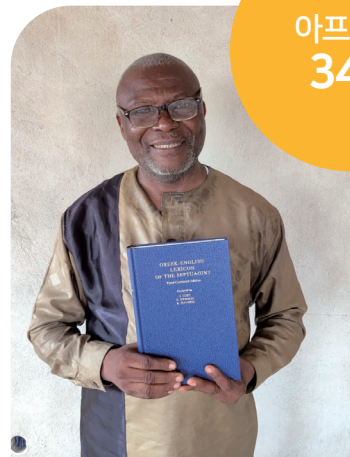
-와산티(Wasanthi/
학미마나 가정교회 성도)

보렐라(Borella) 마을은 힌두교 신자가 많은 지역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한 우범지대입니다. 본 공회가 방문했을 당시, 거리 곳곳에서는 힌두교 축제를 맞아 다양한 종교의식이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80개 성서공회에 1,147,724부의 성경을 보냈습니다!

성경이 발송된 성서공회 (2025.10.31. 기준)

*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후원하신 성경은 전 세계 미자립 성서공회들의 성경 기증 프로그램 및 성경 보급 사업 지원에 사용됩니다.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새한글성경』

전소연(여의도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 전도사)

디모데후서 3:16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성경은 대부분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되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널리 읽혀 온 『개역개정』은 고전적인 문체와 익숙하지 않은 어휘 때문에 젊은 세대나 성경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자 마음먹고 펼쳤다가도 낯선 어휘와 문장에 막혀 이내 덮어 버리곤 합니다.

바로 이런 고민에 응답하여 탄생한 것이 『새한글성경』입니다. 이 번역본은 원문의 뜻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적이고 쉬운 언어로 풀어내어, 누구나 부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

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문장도 짧고 간결하게 다듬어 가독성을 높였으며, 디지털 매체에서도 편하게 읽혀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가까이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새한글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더욱 깊고 다채롭게 묵상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몇 구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2입니다.

시편 1:2

『개역개정』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새한글성경』 여호와와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여호와와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 내어 읽습니다.

『개역개정』의 “묵상”이라는 단어를 “소리 내어 읽습니다”로 풀어낸 것은 히브리어 ‘하가’의 본래 의미를 더욱 잘 살려준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 말씀을 마음으로 조용히 음미하는 것을 넘어, 소리 내 읊조리며 머리

와 가슴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문의 뜻을 깨닫게 해 줍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58입니다.

고린도전서 15:58

『개역개정』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새한글성경』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꿈쩍도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언제나 더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개역개정』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를 “굳건하게 서서 꿈쩍도 하지 말고”로 번역하며 문장 끝에 느낌표를 사용해, 바울의 권면을 더 직접적이고 생동감 있게 전달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한 도전과 위로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원문의 감정과 뉘앙스를 살려 독자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이 『새한글성경』의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2입니다.

디모데전서 1:2

『개역개정』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

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새한글성경』 디모데에게, 곧 믿음 안에서 나의 참된 아들인 그대에게 이 편지를 보내네. 은혜, **한결같은 사랑**, 평화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리기를 비네!

『새한글성경』은 상황에 따라 문체를 달리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답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한 점이 돋보입니다. 덕분에 독자는 바울의 애정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역개정』의 “긍휼”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풀어내어 자칫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개념을 더 직관적이고 친근하게 전달합니다.

『새한글성경』은 우리를 깊은 묵상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싶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과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전하고 싶은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말씀을 향한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해질 바랍니다. 『새한글성경』을 통해 많은 사람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콜롬비아 파에즈 부족, 모국어 성경으로 신앙과 언어를 되살리다 _나사어(Nasa) 성경 봉헌식

▲ 2025년 8월 열린 콜롬비아 나사어 성경 봉헌식

2025년, 서울광업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후원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콜롬비아 첫 번역 성경인 나사어(Nasa) 성경 7,200부를 기증하였습니다.



▲ 서울광업교회가 후원한 나사어 성경 3,600부 발송 모습

지난 8월 1일, 카우카(Cauca) 주 칼도노(Caldono) 체육관에서 나사어 성경 봉헌식이 열렸습니다. 1,8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들의 환영 편지 낭독, 찬양과 기도, 영상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파에즈(Páez) 부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파에즈 부족 지도자들과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성경 봉헌의 중요성과 역사적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봉헌식에서 배포된 성경은 총 1,800부이며, 참석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언어로 말씀하신다!”라고 외치며 기쁨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사라지고 있었지만, 저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나사어를 다시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알데마르 울쿠에(Aldemar Ulcue)/
원주민 지역 교회 목사

콜롬비아성서공회는 파에즈 부족의 원어민 번역팀과 협력하여 약 20년에 걸쳐 나사어 성경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이 번역 과정은 단순히 문자를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파에즈 부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되살리고 회복시키는 의미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이번 나사어 성경 번역이라는 긴 과정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성장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작업은 우리의 언어를 되살리고, 성경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사어 성경이 파에즈 부족의 문해력 향상에도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은 큰 일의 시작입니다!”

- 에니스 인세카(Enith Inseca)/
나사어 성경 번역자

남미 대륙 북서부에 위치한 콜롬비아는 안데스 산맥과 아마존 열대우림, 태평양 연안을 아우르는 풍부한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입니다. 스페인어가 공식 언어이지만, 약 65개의 부족어가 존재하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그중 남서부 안데스 지역의 카우카 주는 원주민 공동체가 밀집해 있어 전통 문화와 언어 보존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는 지역입니다.



▲ 봉헌식에서 환영 편지를 낭독하는 어린이

콜롬비아 카우카 지역에 거주하는 파에즈 부족은 약 24만 명 규모로, 콜롬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원주민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콜롬비아 전체 원주민 인구의 약 21%를 차지하며, 언어 보존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파에즈 부족이 사용하는 나사어는 독특한 문법과 어휘를 지닌 언어로,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를 깊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이어진 스페인어 중심의 교육 정책과 외부 문화의 영향으로, 나사어의 사용은 점차 줄어들며 위축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족 내부와 교육 기관에서 언어 보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파에즈 부족의 기독교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스페인어 성경만 존재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봉헌식에서 나사어 성경을 받은 파에즈 부족

이번 나사어 성경 봉헌식은 콜롬비아 파에즈 부족의 언어와 신앙, 그리고 문화가 함께 되살아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나사어 성경은 어린이와 여성, 젊은 세대를 비롯한 모든 파에즈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국어로 배우고, 그들의 예배와 신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국어가 아닌 스페인어로만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도 모든 것이 스페인어로 진행됩니다. (스페인어)성경을 갖고 있지만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 크리스틴 트라멜(Kristine Trammel)/
글로벌 언어 컨설턴트

이번 봉헌식은 파에즈 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언어와 삶을 회복해 가는 여정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국교회와 후원회원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이 귀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사어 성경은 파에즈 부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영적·사회적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



성경, 데마른 땅에 심긴 소망의 씨앗 _말라위, 잠비아 성경 보급 현장

▲ 자신만의 성경을 선물받은 잠비아 임마누엘 공동체학교(Emmanuel Community School) 학생들과 김영례 권사(대한성서교회 홍보대사)

올해 7월, 본 공회는 아프리카 남동부의 두 나라, 잠비아와 말라위의 성경 보급 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8년 동안 10개국에 총 56,252부의 성경을 후원한 홍보대사 김영례 권사와 함께한 이번 여정은, 단순한 성경 전달을 넘어, 신앙의 절박함과 희망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이 없는 교실과 예배당

잠비아는 헌법상 기독교 국가임을 명시하며, 인구의 85%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잠비아의 교회와 학교는 성경으로 가득할까요?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 대다수의 주민이 성경을 구입할 수 없는 가운데, 잠비아성서공회는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17년 화재로 성경 창고를 잃은 뒤, 현재 컨테이너를 임시 보관소로 사용하며 사역

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매년 20만 부의 성경을 반포하고 있지만, 학교 종교 수업과 교회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웃 나라 말라위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많은 기독교인들 역시 극심한 빈곤 속에서,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비아, 키냐마 지역의 청소년들

잠비아 키냐마(Kinyama) 지역에 있는 임마누엘 공동체학교(Emmanuel Community School)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가난과 장애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청소년들을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이들 가운데, 자신의 성경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처의 자세일 아카데미(Jasail Academy)



▲ 어린이 그림 성경을 선물 받고 미소 짓는 잠비아 자세일 아카데미(Jasail Academy) 어린이

역시 사정은 같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교사와 학생 중 성경을 가진 이는 단 4명뿐이었습니다. 성경을 받은 한 학생은 손에 쥐자마자 첫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내 성경’을 가지게 된 벅찬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말라위, 귀로 듣기만 하던 말씀을 이제 눈으로

말라위 살리마(Salima) 지역의 센가 베이(Senga Bay) 교회. 흙벽돌로 지어진 작은 예배당에는 약 190명의 성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전기 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마을에서, 그들은 오디오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을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인쇄된 성경이 전해지는 순간, 찬양과 춤이 터져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성경을 품에 안고 돌아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격스러운 예배의 완성이었습니다.

“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썩이 나게 함과 같이”(이사야 55:10)

비가 내려 썩이 나게 함과 같이

메마른 땅에 내린 단비처럼,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생명을 틔우는 소망의 씨앗



▲ 성경을 선물 받고 기뻐하는 말라위 성도와 김영례 권사(대한성서교회 홍보대사)

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함께한 **홍보대사 김영례 권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며 그 땅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물도 없는 그 땅이



▲ 말라위 살리마(Salima) 지역 센가 베이(Senga Bay) 교회 성도들

지만 복음을 사랑하는 열정은 우리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잠비아와 말라위도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의 소망으로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후원회원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동일한 마음으로 잠비아와 말라위의 메마른 땅에 ‘**성경**’이라는 **소망의 씨앗**으로 심기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먼 땅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영혼이 말씀으로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2025년
잠비아에 22,932부, 말라위에 21,917부의
성경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손길

▲ 후원회원 표삼민 집사가 매일 읽는 성경 (사진 제공: 표삼민 집사)

본 공회 해외 성경 보내기 후원회원인 표삼민 집사는 일흔을 바라보는 노년이지만, 마음만큼 여전히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한 청년과 같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꾸준히 해외 성경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며, 아낌없이 헌신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파킨슨 병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힘겹게 돌보면서도, 단 한 번도 후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싶습니다.”

표삼민 집사가 늘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의 꿈은 단순하지만 크고 분명합니다. **“컨테이너 한 대에 성경을 가득 실어 전 세계로 보내는 것.”** 그래서 되도록 모든 비용을 절약하여, 한 권이라도 더 많은 성경을 전하는 것이 그의 바람입니다.

성경을 보내는 일은 그에게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의 행위**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삶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선교사로는 나가지 못하지만, 성경을 보내는 일을 통해 복음 전파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원의 물결 열차의 맨 뒷 칸, 맨 마지막 자리에 앉았다고 해도 이 열차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표삼민 집사는 믿음으로 오늘도 한 권의 성경을 세상 끝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의 삶 전체가 바로 이 고백의 증거입니다. 🙏

성경을 통해 르완다의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청주중앙교회 - 르완다 <킨야르완다어 성경> 920부 기증



▲ 르완다 성경 기증 예식에 참석한 청주중앙교회 성도들

2025년 8월 21일, 청주중앙교회(임학용 목사)의 후원으로 르완다에 <킨야르완다어 성경> 92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청주중앙교회는 설립 79주년을 기념하여 성도들이 르완다 성경 보내기 후원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청주중앙교회 임학용 목사는 “성경이 없는 이들, 성경 한 권이라도 받기 원하는 이들에게 이 성경이 전해져 영혼이 살아나고, 그를 통

해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소리가 날마다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성경을 통해 르완다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르완다성서공회 비아투르 루지비자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성경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쥐어질 때, 공동체에서 나누는 성경 말씀이 빛과 희망이 되고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라고 기대를 전했습니다.

니제르에 심겨진 성경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수지선민교회 - 니제르 <프랑스어 성경> 1,550부 기증

2025년 8월 28일, 수지선민교회(이건표 목사)의 후원으로 니제르에 <프랑스어 성경> 1,55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수지선민교회 이건표 목사는 “성경은 보내고 끝이 아닙니다. 성경이 니제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 역사하고, 주님께서 니제르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니제르 사람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니제르성서공회 하마 야에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저희는 특별히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니제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 니제르 성경 기증 예식에 참석한 수지선민교회 성도들



▲ 성경 증정(왼쪽부터 본 교회 호재민 총무, 세네갈성서교회 빅터 텐탱 총무, 부르키나파소성서교회 드라만 안키네 총무,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가봉성서교회 띠에리 마비알라 총무)

▲ 쿠바 성경 기증 예식에 참석한 함께하는교회 성도들

부흥의 역사가 부르키나파소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 부르키나파소 <무레어 성경> 9,402부 기증



2025년 8월 31일,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의 후원으로 부르키나파소에 <무레어 성경>을 비롯한 총 9,402부의 성서를 기증하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기증 예식에는 후원을 받게 된 부르키나파소성서공회의 드라만 안키네 총무가 직접 교회를 방문하여 감사를 전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영훈牧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세계 곳곳에 전해지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성경으로 인해 공동체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140년 전 한국에서의 선교 사역도 성경을 출판하고 보급하며 시작되었고, 성경을 통해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부르키나파소에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라고 기대를 전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성서교회 드라만 안키네 총무는 “정치적 불안정과 종교적 박해가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더욱 소중한 위로와 힘이 됩니다. 현지 교회들로부터

성경에 대한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여의도순복음교회의 후원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급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인구의 약 63%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기독교인은 약 6%에 해당합니다. 60여 개의 다양한 부족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무레어는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현지어입니다.

이슬람이 주류 종교인 환경에서 소수인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압력과 사회적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현지 기독교인들에게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은 신앙적 위로와 희망의 근원이 되고 있어, 성경에 대한 필요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성경은 우세한 이슬람 환경과 기독교 박해,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경은 쿠바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함께하는교회 - 쿠바 <스페인어 성경> 765부 기증



2025년 9월 16일, 함께하는교회(김은동 목사)의 후원으로 쿠바에 <스페인어 성경> 765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함께하는교회 김은동牧사는 “성경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냄으로 쿠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경이 들어가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라고 성경 보급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쿠바성서교회 알란 몬타노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쿠바 사람들에게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소망과 힘, 그리고 위로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쿠바 구석구석까지 전하고자 하는 이 사명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아메리카 카리브 해에 위치한 쿠바는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정부의 통제와 차별 속에 놓여 있는 공산국가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많은 쿠바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10년간 쿠바 교회는 3배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쿠바 내에서는 성경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지 못해 해외 수입에만 의존하며, 후원을 통해서만 성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쿠바에 전해지는 <스페인어 성경> 765부는 공산주의 체제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기다려 온 기독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쿠바 교회의 부흥을 돕고, 가정마다 믿음과 소망을 세우는 생명의 빛이 될 것입니다. 쿠바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 절망을 넘어서는 믿음을 얻고, 성경 중심의 부흥을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 성경 증정(서울광염교회 김익수 집사)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서울광염교회 - 미얀마 <미얀마어 성경> 5,290부, 몽골 <몽골어 성경> 3,870부, 시리아 <아랍어 성경> 4,000부, 케냐 <영어 신약/시편/잠언> 9,150부, <프랑스어 신약/시편/잠언> 810부,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어 신약> 10,000부, 인도 <카시어 성경> 2,700부, <칸나다어 성경> 1,410부



2025년 10월 31일, 서울광염교회(조현삼 목사)의 후원으로 해외 6개국에 성경 37,23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서울광염교회는 2021년부터 온 세계를 예수의 피 묻은 성경으로 칠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현재까지 45개국에 총 292,849부의 성경을 보냈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서울광염교회 성경 반포 사역 담당인 최규환 목사는 “성경은 생명을 얻게 하는 책임입니다.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반포되는 6개 나라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생명인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성경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미얀마성서공회 사무엘 아예 라 총무를 비롯

하여 후원받는 성서공회 총무들은 영상 인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준 서울광염교회에 감사사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6개국은 각기 다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찾기를 기대하며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랜 내전과 박해 속에 있는 미얀마와 시리아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라마 불교 문화가 강한 몽골과 이슬람 문화가 뿌리내린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토착신앙 속에 살아가는 인도 카시족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경을 구하지 못하는 케냐에 위로와 소망을 전할 것입니다. ☺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기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02 전화로 가입하기

후원자 전용 전화



080-374-3061(수신자 부담)

03 직접 송금하기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재)대한성서공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070-01-0340-570

신한은행 140-009-909678

우리은행 1005-702-311166

수협은행 033-01-085327

농협은행 355-0025-0990-53

우체국 011916-01-000076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디모데후서 3:16~17

12월 14일(둘째 주일)은 성서주일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전해진 믿음, 성경으로 전하는 복음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 그 뿌리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신앙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전도부인들은 산골 안채까지 찾아가
여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게 된 여성들의 감격은 사경회로 이어졌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한 어머니의 열정은 한국교회 부흥의 토대와 신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성서주일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누린 은혜를 기억하고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140년 전 서구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열정,
이제는 성경을 기다리는 지구촌 이웃에게 우리가 응답할 때입니다.



스크랜튼 부인 감독하의
부인권서들 (1901)

